

# ‘악마로 이끄는 통로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여성 연구: 기독교의 기원부터  
1500년까지 —

김재현\*

서론

예수와 바울이 그리 사랑한 여인들

사막의 어머니들, 동정성

“내 옆에 물어 다오”

하늘의 신비를 흠쳐온 “언약한 여인들”

나의 몸에 시대의 아픔을 담아

결론

## 서론 — ‘기저귀찬 여인들’: 열등의 표상인가, 생명의 보고인가?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교단의 총회장으로 있던 L목사는 2003년 11월 12일, 교단 산하의 대학교 채플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 어느 교단이든지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만들어도 우리 교단은 안돼, 그게 보수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신학에 맞는 거야”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진 “여자들이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돼”라는 강력한 주장은 채플 장소를 넘어서 사회-종교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들어, 기독교의 많은 교단들이 여성안수를 허락하고 교회내의 여성들의 구체적인 참여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목사가 속한 교단은 여성안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마저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 2천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신학적 위치 설정, 교회와 종교문화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 남성들과의 관계와 상대적인 위상이라는 문제는 많은

---

\* 한국고등신학연구원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한 논란은 대개 ‘배우지 못한 가냘픈’ 여성들에게 불리한 측면을 담고 있었다. 여성은 아담이래 인간을 악마에게 이끈 통로를 제공한 죄로 당연히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자로 종종 묘사되었다. 어거스틴(Augustinus) 뿐만 아니라 아퀴나스(Aquinas) 역시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다. *Maleus Malleficarum*에서 고삐가 풀려나온 ‘마녀의 망치’(Witch's Hammer)는 인간 이성과 양심을 눈뜨게 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시기로부터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마녀사냥의 도구로서 바쁘게 움직였다. 신앙의 자유를 희구한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평강의 땅’으로 간주한 살렘(Salem)에서 대다수 여성으로 이루어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마귀의 동료들을 발견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항상 철저하게 박해와 억압만을 받았거나, 우군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바울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독교는 일찍부터 사라와 마리아 안에서 이브의 이미지를 능가하는 재생과 부활의 상징성을 발견했다. 드물게 1인칭 서술 화법으로 기록된 로마의 젊은 귀족 여성 페르페투아(Perpetua)의 순교기(202년경)는 순교문학의 절정을 보여주었고, 갈등과 분열로 고민하는 주교들을 화해시켜 주기도 했다. 어거스틴이 불평했던 투박한 성경책을 새롭게 만들어 낸 (Vulgate) 제롬(Jerome)은 로마와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극찬했다. 중세기 마리아에 대한 신앙은 고난 받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껴안은 채 대리석으로 만든 대좌 위에 서서 현실과 영적 빈곤함에 지친 이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비잔틴 기독교 예술의 꽃인 아이콘(Icon)은 이레네(Irene)와 테오도르(Theodore)라는 두 명의 황후들에 의해 지켜졌다. 12세기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논리적 설명에 진정한 고난(calamity)을 아벨라르 자신이 회상할 것을 주문했고, 베아트리스(Beatrice)는 에카르트트의 개념적이고 초월적인 명상과 변증을 넘어 장작더미라는 현실 위에 몸을 내 던졌다(A. Carlson 1993).

지난 30여 년간의 기독교역사에 나타난 여성연구의 놀라운 발전은 지난 2천 년간의 기독교 역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여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여성이라는 연구주제를 다루는 여성 학자들의 증가, 여성관련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발견과 소개,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 여성과 이단 같은 종교-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이러한 연구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주었다(김재현 2003).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여성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고, 적지 않은 경우 더 탁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류역사에 남성만큼 빼어난 여성들의 발자취는 별로 없었다는 보카치오(Boccaccio)의 논리에 대항하여 수많은 고귀한 여성이 있었음을 강조한 크리스틴(Christine de Pizan)은 기독교여성에 대한 오늘날의 왕성한 연구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은 기독교의 출발에서부터 종교개혁 직전에 이르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들을 다섯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시대적 흐름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몇몇 여성들이 감당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려 한다. 본인은 현재의 한국기독교의 위계와 구조에서 여성들이 어떤 자리를 지녀야 할 것인가라는 특정한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특정문화와 전통, 그리고 교단적 전승 배경이 이성과 상식에 기초한 요구만큼이나 중요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예수와 바울이 그리 사랑한 여인들 — 마리아와 테클라

‘살갓을 가릴만한 천으로 된 옷만을 몸에 입어야’ 한다는 터툴리안의 강력한 여성 비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여성들이 기독교의 태동기에서부터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Tertullian, *On the Dressing of Women*, I.22).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러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발걸음은 디베랴 강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요한 21:1)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3년에 걸친 예수의 공적 생애를 도와주었듯이, 예수이후 기독교의 태동과 형성기에도 여성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했다. 최근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외경적 자료, 나그 하마디(Nag Hammadi) 문서, 다양한 성인전(hagiography)에 대한 연구는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 복음과 테클라 행전은 좋은 일차 자료이다.

소피아와 함께 마리아는 초기 영지주의 문서 중에서 중요한 여성상을 보여 준다. 부분적으로 남겨진 *마리아 복음(The Gospel of Mary)*은 예수의 죽음과 승천 이후 남겨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신경전으로 시작된다(Nag Hammadi Library 523-527; King 2003). 마리아는 실의에 빠진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선교 대헌장을 전달해 준다.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도 마리아

아를 극진히 사랑하고,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와 많은 이야기를 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 시대가 마감된 후,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예수와 같은 신적인 존재도 박해를 받아 죽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탄에 빠진 제자들에게 마리아는 당당하게 말한다. “울지 말고 비탄에 젖지 말고,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의 은혜는 전적으로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고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준비시켰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sup>1)</sup> 마리아의 이러한 격려는 결국 제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구원자 예수의 말씀을 논하기 시작했다.

이에 베드로는 한걸음 더 나간다. 베드로는 예수가 자신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마리아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한다. 마리아는 마음과 영혼을 통해 어떻게 비전을 볼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와 나는 대화를 전해준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힘, 무지와 망각, 깨달음과 구원에 대하여 예수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를 천천히 전해 준다. “세상 안에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천상의 형태 안에서 천상의 형태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흘러가는 망각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났다. 이제부터 나는 침묵 가운데서 시간과 계절과 영원 남은 시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에 놀란 안드레는 ‘그 구원자’가 자신들이 아닌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잇는다. “그가 정말 우리 같은 지식이 없는 여자와 은밀히 말했습니까? 우리가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가 우리보다 그녀를 좋아했습니까?” 이에 마리아는 슬피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내 형제 베드로여, 당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자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논박에 레위는 베드로의 성미를 책망하면서 마리아를 두둔하고 나섰다.

만일 그 구원자가 그 여자를 훌륭하게 만들었다면, 누가 그 여자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그 구원자는 그녀를 매우 잘 압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보다 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이 우

1) 본 논문의 나타난 모든 인용구는 본인이 직접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리에게 명 하신대로 완전한 사람으로 옷 입고 우리 자신을 위해 그를 얻으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다른 규칙이나 다른 법을 넘어 그 구원자가 말한 계명을 넘어서 주장하지 맙시다.

불완전한 자료로 남겨져 있고 이후 기독교의 경전 속에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는 초대기독교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중심적인 입장을 웅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마리아 복음은 이후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성인전의 형성과 승배로 이어지면서 기독교역사에서 중요한 전승을 만들어 내었다. 마리아와 아브라함을 소재로 한 종교극은 에프람(Ephram the Syrian) 이후 중세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순례 객과 십자군 출정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베즐레이에 승배된 막달라 마리아의 유골은 기독교 성인승배, 십자군의 격려, 그리고 기독교 민간 신앙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마리아 이야기가 기독교의 초창기 예수와의 직계 제자들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면, 테클라의 활동은 바울과의 관계에서 전개된다(Acts of Paul and Thecla, Dagron 1978). 마리아의 모습이 전통적인 초기 기독교사상에서 적지 않은 일탈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테클라 행전은 전도와 순교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기독교적 이념을 드러내 준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관점에서 글을 전개함으로써 바울의 저작과는 새삼 다른 느낌을 전달해 준다.

이코니움에서 타미리스와 약혼한 테클라의 운명은 바울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전기를 맞는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영생과 금욕에 대한 바울의 설교는 테클라를 ‘창문에 달라붙은 거미’와 같게 만들었다. 테클라는 삼일밤낮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다. 이에 격분한 타미리스와 테클라의 어머니의 박해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테클라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타미르스의 반박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등장과 함께 기독교가 강조한 동정성(virginity)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바울이 가르치는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동정성을 강조하게 될 경우, ‘남성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이코니움과 로마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테클라는 타미르스와 자신의 어머니의 고소에 의해 광장에 잡혀 나와서 장작더미 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아래의 장작더미의 불길은 테클라를 전혀 태우지 못했고, 오히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테클라가 죽음을 불사하고 박해를 받아 기독교의 복음과 동정성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순간, 이코니움에서 추방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동

굴 속에서의 기도뿐이었다는 점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의 구원을 받은 테클라는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테클라의 빼어난 미모와 당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안 바울은 테클라의 부탁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테클라의 희망사항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또 한번의 박해과정을 통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미모에 빠진 알렉산더의 청을 받아 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당혹하게 한 죄로 재판정에 들어선 테클라는 암소와 암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동물들은 테클라를 전혀 만지지 못했다. 대신에 테클라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놀랄만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가 기도를 마쳤을 때, 테클라는 ‘물로 가득찬 구덩이(웅덩이)’를 보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이제 나 자신을 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서, 스스로를 안으로 던져 넣었다. 테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마지막 날에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웅덩이에 몸을 던졌다. 테클라 행전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본 여인들과 군중들이 울면서 말하되, “너 자신을 물속으로 던져넣지 말아라.” 또한 지방관도 눈물을 흘렸는데, 왜냐하면 그 징표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삼켜 버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던졌다. 그러나 표징들이 번개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죽은 자 주변을 떠 다녔다. 그녀가 마치 벌거벗은 것인 양, 불같은 구름이 그녀 주변에 있었다. 그래서 난폭한 짐승들도 그녀를 만지지 못했으며, 그녀가 벌거벗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구절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환상이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현실과 환상을 절묘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박해와 세례가 역설을 일으키며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환상 가운데서 여성이 스스로에게 세례를 베풀 전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세례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난처함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테클라의 설명을 들은 바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테클라의 복음전파를 두둔하고 나선다. 테클라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장수했다. 죽은 후에 마침내 바울의 묘지에 가까운 곳에 안

장되었다.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에서 매력을 느낀 테클라는 당대 여성으로서 힘든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을 지녔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졌으며, 바울의 동의여부와 관련 없이 환상을 통해서 스스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전파와 세례, 그리고 박해의 문제를 스스로 전개해 나가는 테클라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테클라를 위협에서 구해준 것은 언변과 변론에 능하고 이코니움에 복음을 가져온 바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글 전체를 통해 바울의 기도는 특별한 가시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암소와 사자의 발톱 그리고 화염 목에서 테클라를 구해낸 것은 테클라 자신의 기도와 이와 직결된 기적이었다. 테클라가 본 환상과 비전, 그리고 테클라가 보여준 열정과 신앙이 그녀 자신을 구한 직접적인 동인으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마리아와 테클라 이야기는 기독교의 태동기라는 이른 시점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에게 폄하적인 발언을 쏟아낸 터툴리안이 초기 순교기의 전형인 페르페투아 행전을 편집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Sarah 1996; Salisbury 1997).

## 사막의 어머니들, 동정성 — 탈출구인가, 허울좋은 억압기제인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인 박해가 주는 상징적 가치를 대치할 만한 '제2의 세례'(second baptism)의 의미를 사막에서의 수도생활 가운데 찾았다. 사자의 발톱에 찢겨 흘러내린 핏방울 속의 피의 성찬은 사막의 한 가운데서 금욕의 꽃과 고행의 정원을 가꾼 수도사들에 의해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었다. 그리고 '사막'이라는 천상의 정원에는 파코미우스(Pachomius) 시대와 같은 이른 시기부터 여성들이 금욕주의 수행의 동료로서 존재해 왔다. 파코미우스의 공동체에서 시작된 여성 공동체는 이중수도원과 수녀원의 역사를 통해 기독교에서 오랜 전통을 지속해 왔다.

*Apothegmata*와 같은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에서 여성 지도자들(Desert Mothers)이 남긴 말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Russell 1980). 이는 남아있는 자료 자체는 남성들에 비해 작지만, 여성들의 활동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금욕주의의 발전과 수도생활, 이와 함께 강조되기 시작한 동정성(동정녀)에 대한 강조는 여성들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사막학교와 예루살렘을 포함한 다양한 수도원의 등장은 많은 여성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기회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에게 보다 균등한 가르침과 수행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일상적인 주제들(가사노동, 노예, 돈, 친척, 아픈 아이들)을 떠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동료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과의 교제와 우정을 나눌 수도 있었다. 제롬의 친구였던 로마의 귀부인 마르셀라(Marcella)에게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도 있었다. 마르셀라는 로마에서 성경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는 칭찬을 받았으며, 심지어 이 시대 기독교 논쟁의 화두였던 오리겐 논쟁에 뛰어들 정도였다. 금욕주의와 동정성에 대한 강조는 에제리아(Egeria)나 유도키아(Eudocia)의 예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다양한 곳을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로마의 멸망이후 어거스틴의 도움을 얻어 북아프리카에 수도원을 세운 멜라니아(Melania the Younger)의 경우에서와 같이, 적지 않은 여성들이 수도원 내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사막의 교부들이 제국의 기독교가 발달하고 있던 도시를 떠나 새로운 순례와 고난의 의미를 발전시켰듯이,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금욕주의적 여성들은 ‘동정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했다. 루에더(Ruether)의 지적과 같이 동정녀의 범주가 이 시대 기독교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범주(창녀, 아내, 동정녀)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Ruether 1974, 164-5). 여기서 ‘동정성’은 여성들이 이브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의미한다. 동시에 부활이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 금욕주의 환경에서 나온 여성의 동정성에 대한 강조는 여성들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동시에 교리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수도원적 삶은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억압하면서, 동정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를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마리아 개념(Mariology)도 이런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기독교 내의 새로운 영적 여성상에 대한 갈구는 기존 지중해 문화에 편재해 있던 ‘하늘의 여왕’과 ‘신의 어머니’ 개념을 기독교의 마리아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Ruether, 179). 동정과 금욕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힐데가르트를



포함한 중세 중기 여성 신비주의자들의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강조와도 깊은 연관성을 제시해 준다. 매터(A. Matter)가 잘 보여주었듯이, 아가서에 대한 신비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은 동정을 강조한 여성과 교회의 연합과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Matter 1990).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의 형성기를 대표하는 4세기 르네상스는 단지 남성들의 전유물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비록 정경작업과 교리화 작업 같은 일에서는 여성들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다양한 기독교의 문화와 발전단계에서 여성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동정과 금욕에 기초한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이 여성들의 위치를 얼마나 고양시켜 주었는가라는 점이다. 동정녀개념의 발전이 기독교와 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굴레를 넘어서게 되는 데 획기적인 기능을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여성 억압기제로 작용했는가라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동정(동정성)에 대한 강조가 현실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방법 중의 하나였는가 아니면 여성들에 대한 또 다른 억압 기제였는가라는 질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종 수도원개념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당대 여성들이 쉽게 꿈꿀 수 없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분명 동정(동정성)은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기독교적 이상과 새로운 문화적 이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정에 대한 이 같은 강조는 여성들에게 아직도 자유와 억압기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기독교는 사람들을 구속론과 종말론에 과다하게 묶어 놓음으로, 이전 로마시대 여성들의 위치와 비교해서 당대 기독교 여성들에게 대단한 자유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동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했던 여성들은 여전히 원죄를 억압하여 심판을 통과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들의 역할을 옹호하고 강조한 교부들도 사실 여성성과 성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거나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 긍정적인 교부들이 마리아의 동정성에서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발견했지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들의 재혼과 결혼 생활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 긍정적인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다. 적지 않은 경우 이러한 금욕과 동정에 대한 강조는 선한 창조에서 기인한 인간본성(human nature)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보상기제로 사용되었다(Clark 1986, 44). 동정성은 교부들이 지적한 여성들이 갖기 쉬운 경솔함, 경박함, 지성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간주되었다. 여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한 제롬도 여성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 때 원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주장한 점은 이런 맥락에서 이상한 주장이 아니다. 사막의 어머니들과 동정녀들은 여성의 가치와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보다 분명하게 발견했지만, ‘악으로 이끄는 통로’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역설적인 이중적 자기 정체성 문제는 남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성들과도 여전히 함께 남아 있었다.

### “내 옆에 묻어 다오” — 둘이 하나보다 아름다운 이유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수도사 출신의 루터(Martin Luther)는 수녀인 카타리나(Katharina von Bora)와의 결혼을 통해 가정과 아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데 가족과 교육과 여성의 가치를 발견된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남성과 위대한 여성은 종종 짝을 이루어 등장했다. 제롬과 마르셀라, 베네딕트와 스콜라스티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베르나르와 힐데가르트, 프란시스와 클라라의 예에서 우리는 당대 기독교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동반자와 동역자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사랑과 우정을 느낄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환상적인 하나의 쌍을 이루어 시대를 풍미했던 예는 중세 중에서도 암흑기라고 불리는 8세기 중반기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다(McNamara 1992).<sup>2)</sup>

보니페이스(Baniface, c754/5 순교)와 르오바(Leoba, 779년 죽음)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보니페이스는 아일랜드와 영국기독교를 모태로 해서 중세 독일의 종교문화 중심지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도입시킨 사람이다. 그는 마인츠와 풀다를 중심으로 게르만 지역에 기독교를 열정적으로 전파했다. 보니페이스의 노력과 헌신은 중세 독일의 기독교의 토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카롤링거 기독교와 중세 독일 신비주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초기 황량한 독일 선교사역 과정에서 보니페이스가 다른 어떤 동료들보다 공을 들여 자신의 사역을 돕도록 했던 자가 바로 르오바였다.

2) 중세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 Power, *Medieval Women* (Cambridge [E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Katharina M. Wilson, *Medieval Women Writers*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c1984).

라비누스 마우루스의 요청에 의해 수사 루돌프가 지은 *르오바의 생애*(Schmitt, 81-98; *The Life of Leoba*)는 8세기 중엽의 수녀들의 교육과 삶에 대한 증언, 영국과 북유럽의 선교행로와 연관성, 독일 내륙지역에서의 르오바가 행한 다양한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이다. 르오바는 브리튼이라 불리는 웨스턴의 엄격한 수녀원에서 수녀원장 테타(Tetta)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았다. 늙은 부부였던 아버지 디노와 어머니 아에바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르오바는 어린 시절에 테타에게 넘겨져서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을 배웠다. 그녀의 기도와 수행,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삶의 양식은 동료 수녀들의 모델이 되었다.

로마교황에 의해 안수를 받은 보니페이스가 독일로 들어와 기독교를 빠르게 확장 시켰다. ‘하나님의 교회가 증가하고 그리고 완전함에 대한 바람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을 때,’ 보니페이스는 수도원을 세워 기독교 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를 원했다. 이에 자신과 친척관계에 있으면서도 ‘학문과 거룩함에 대한’ 명성이 널리 퍼져 있던 르오바를 독일로 데려오게 되었다. 독일로 건너온 르오바는 비쉬호프스 하임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녀 공동체를 지도했으며, 인근 수녀원에 고급인력을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성경과 예전에 해박했으며, 기적과 혜안을 가지고 수녀들의 신앙을 고취시켰다. 이후 르오바는 페팽에서 샤를마뉴에 이르는 카롤링거 왕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보니페이스의 화려한 활동과 르오바의 열정적인 삶과 더불어 르오바에 대한 보니페이스의 관심과 사랑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풀다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토대를 안정시킨 보니페이스가 장차 순교하게 될 프리지아(Frisia)로 떠나면서 남긴 유언은 그가 르오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르오바를 불러 “그녀가 선택한 나라를 버리지 말 것과 그녀가 시작한 선한 행위들의 영역을 넓혀나갈 것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녀 자신의 약함을 고려하지도 말고,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햇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특별히 그는 수도원의 나이든 수도사들에게 르오바를 ‘존중함과 존경’을 가지고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그녀의 뼈를 자신의 무덤 곁에 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보니페이스의 부탁으로 르오바는 풀다의 남자수도원에 와서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는 그전이나 후로도 매우 드물었다. 르오바는 보니페이스의 유언을 받아들여 자신이 선교의 장으로 선택한 독일을 떠나지 않았으며, 성실한 사역을 행하다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녀가 10월 4일에 죽게 되었을 때, 그녀의 신체는 “귀족들의 긴 장례행렬을 따라 풀다의 수도사들에 의해 모든 종류

의 존경의 표시와 함께 그들의 수도원에 옮겨졌다. 그리하여 거기에 있는 어른들은 성 보니페이스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는데, 즉, 그녀의 유해가 그녀의 뼈들 곁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스콜라스티카가 베네딕트 자신과 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클라라가 프란시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르오바가 보니페이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지만, 이들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남성 주인공들은 자신의 동료이자 동반자들이었던 여성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다. 르오바에 대한 보니페이스의 각별한 사랑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나 그 후에도 남성의 수도원을 왕래하면서 수도사들을 격려하도록 르오바를 배려했다. 보니페이스가 자신의 유언에서 르오바가 기독교의 전파라는 막중한 임무를 호트러짐이 없이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했던 것은 자신이 르오바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보니페이스의 유언과는 달리 폴다의 수도사들은 르오바가 죽게 되었을 때 그녀를 보니페이스의 곁에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8세기의 르오바의 활동이 이후 중세 독일기독교의 확립과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안다. 이런 의미에서 보니페이스는 ‘둘이 하나보다 더 이름답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보니페이스와 르오바의 사랑과 관심은 아벨라르의 변명과 엘로이즈의 애타는 사랑과 눈물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기독교 역사에 빛나고 있다. 이들의 삶이 한국기독교의 초창기에 헌신한 모방 신부와 강완숙(강 골롬바)를 생각나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 있다.

## 하늘의 신비를 흠쳐온 “언약한 여인들” — 힐데가르트와 베긴 여성들

개혁기 혹은 르네상스기로 불리던 12세기에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수많은 여성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남편 헨리 1세(Henry I)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캔터베리의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한 모드(Good Queen Maud), 네 명의 왕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뒤로 하고 폰트브롤에서 마감한

아키텐(Aquitaine)의 엘레아노르(Eleanor), 알렉시아드(Alexiad)로 유명한 비잔틴의 12세기 역사가 아나 코멘나(Anna Comnena) 같은 여성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엘로이즈와 아씨시의 클라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여성들이 당대 여성들의 엄청난 지성적 능력, 작가로서의 총명함, 수녀원장으로서의 능숙함, 그리고 철학과 윤리에 있어서의 높은 가르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을 통해 중세 수도원문학과 스콜라사상이 최고조에 이른 12-13세기에 적지 않은 위대한 기독교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시대 종교사회의 발전과 기록물의 증가는 그 이전의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수많은 여성들이 이 때에 활동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이 중에서 중세 신비주의의 서막을 장식한 빙엔의 힐데가르트(Hildegard of Bingen)와 가슴 속의 신비로운 진리를 죽음을 불사하고 아름다운 시 구절로 남긴 13세기 베긴회 여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힐데가르트는 대우주로서의 세계와 소우주로서의 인체의 신비로운 연합에서 들과 물고기,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르는 광대한 주제를 다룬 위대한 사상가, 설교가, 저자, 수녀원장 이었다. 인간의 신체적 기관 속에서 우주와 진리를 읽어내고, 천상과 지상의 하모니를 음악과 그림으로 담아낸 힐데가르트는 삼위일체적 신과 인간과 자연을 생명의 호흡으로 연결해 주었다. ‘그녀의 살아 움직이는 숨결’은 창조와 종말론이 그녀의 신비로운 사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주었다. 만물의 조화와 생명력은 그녀의 주된 저서인 *Scivias*, *Liber Meritorum Vitae*, *De Operatione Dei*라는 3부 작에 주로 나타나 있다(김재현 2001).<sup>3)</sup>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런 심도 깊은 논의는 개인적 차원의 경건에 만족한 이전의 많은 여성들의 이미지와는 다른 차원을 제공해 준다. 이전 기독교 여성 작가들과 달리 우주적 차원을 강조한 그녀의 사상은 개인의 심연과 우주적 고상함이라는 수직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해주고 있다. 동시에 그녀의 사상과 활동은 루페르츠(Ruperts) 수녀원의 벽을 훨씬 넘어 유럽의 많은 세속 군주들과 교회의 성직자들에게까지 펼쳐져 있다. 그녀는 무엇보다 행동하는 “예언자요 개혁가”였다. 5살이 되기 이전부터 그녀가 받아들인 신적인 계시는 “살아있는 빛”(The Living Light)에

3) Hildegard, *The Book of the Rewards of Life*. Bruce W. Hozeski tr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Scivias*. Columba Hart & Jane Bishop trans. (New York: Paulist Press, 1990); *Hildegard of Bingen's Book of Divine Works: with Letters and Songs*. M. Fox trans. (Santa Fe, N.M.: Bear & Co., c1987).

의해 먼저 공인을 받았다. 그녀는 12세기 판 Dear Abbey로서의 편지작가요 설교자로 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수도원장이나 주교 혹은 교황이나 황제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는 당대 라인강변과 남부 프랑스에 만연한 카타르(Cathars)에 대한 강력한 설교와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레고리 7세의 개혁적 이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회개혁에 대한 그녀의 왕성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라는 ‘바람에 날리는 하나의 깃털’과 같은 삶을 살고자 했다. 바로 이러한 그녀의 삶 속에서 ‘천상의 하모니’와 그녀가 그려낸 ‘신의 도성’의 비밀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숨결 위의 하나의 깃털처럼”이라는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도 있다.

활활 타는 듯한 (불 같은) 성령이여, 용기의 원천이여,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이여, 오 거룩한 숨결이여,  
 오 강렬한 사랑이여, 오 가슴 속에 구세주여,  
 향유가 좋은 것의 향 내음으로 마음을 넘치게 하며,  
 방황하는 이들을 집으로 이끄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오 하나님의 맑은 거울이여, 땅 위에 높이 있는 모든 것과,  
 모든 깊은 것 속에 있는 것들을, 충만하게 스며들어 있는 힘의 흐름이여,  
 당신은 모든 백성들을 함께 묶으시고 모으십니다.

힐데가르트가 공식적인 교회 조직과 위계 내에서 자신의 신비적인 사상을 발전시킨 것에 반해, 베긴 여성들(Beguines)은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정통적인 방법을 넘어서면서도 하늘의 신비로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다. 이들은 13세기 들어 발흥하기 시작한 도시생활 안에서 전문적인 구도자로서의 서원과 종교와 사회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돌보거나 바느질과 젓떡이기 같은 스스로의 노동력과 일상 속에서 종교적인 삶을 구현하고자 했다. 메히트힐트(Mechthild of Magdeburg)와 마그리트(Marguerite of Porete) 같은 베긴 여성들은 새로운 통찰력과 지역 언어 문화를 발전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김재현 2003; Schmitt, 217-230).

메히트힐트의 *Flowing Light of the Godhead*은 베긴 여성의 신비적인 사상과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메히트힐트의 작품은 드라마, 설교, 호칭기도(litany), 비전들, 궁정 안에서의 사랑을 담은 시, 은유적인 대화, 그리고

논쟁들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다양한 문학적 장르는 성직자들과 수도원 단체들, 참사회 의원들의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움을 전체적으로 책망하기도 했다. 그녀의 글들은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위한 염려와 날카로운 선지자적 비평을 포함하여, 문학적인 장르와 신학적인 통찰력의 풍성함을 잘 드러내 준다. 이러한 비평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sup>4)</sup>

저주 있으리라. 거룩한 기독교의 왕관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가! 당신으로부터 보석들이 떨어져 나왔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거룩한 기독교인의 신앙을 굽아먹고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금은 육체의 냄새나는 웅덩이 속에서 색이 바래졌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초라하며 참된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순결은 탐욕이라는 음탕한 불 가운데서 타 버렸습니다. 당신의 겸손은 당신의 육체라는 늪 속에 묻혀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함은 이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감소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덕으로 이루어진 당신의 만발한 꽃은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Flowing Light*, VI, 21).

다른 베긴 여성들에 비해 메히트힐트의 최후는 매우 비극적이었는데, 1270년경 이미 60이 넘어서 “늙고 지치고, 아마도 맹인이 되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도 헬프타에 있던 헤케본의 게르투르드나 메히트힐트의 공동체가 없었던 들, 우리는 *Flowing Light*의 운명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이 지긋하고, 세월의 풍상을 겪은 자매” 막데부르크의 메이트힐트는 이곳에서 베긴회의 도움을 받아 천상에서 흘러내리는 빛의 신비를 온전히 기록할 수 있었다. 어쩌면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은 사막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신비로운 신에 대한 구도자적인 상념이 다음과 같은 시에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당신은 홀로서야 하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당신은 항상 분투하여야 합니다.

4) Mechthild, *The Flowing Light of the Godhead*, Frank Tobin ed. (New York: Paulist Press, c1998).

당신은 묶인 것을 풀어 자유케 되고  
 그 자유를 묶어야 합니다.  
 당신은 병자를 위로하고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고통의 물을 마시고  
 덕이라는 연료와 함께 사랑의 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광야에게 살게 될 것입니다(*Flowing Light*, 1:35).

자기 저작의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었던 메히트힐트는 서정적 운율을 통해 카리스마적인 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녀는 서정적 표현을 통해 우주적이고 상징적인 비전 속에서 세계의 기원을 찾았는데, 하늘의 시작과 타락에서 시작해 그리스도, 마리아, 교회를 통한 구원의 순서를 따라 종말에 대한 다양한 묘사에까지 나아간다. 그녀는 이처럼 세계의 기원에서 종말에 이르는 거대한 신학적 주제와 구원의 역사를 잘 다듬어 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대한 신학적 구조가 어거스틴에서 아빌라의 테레사(Avila of Teresa)에 이어지는 지적 논의의 전통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메히트힐트의 상상력이 풍부한 비전(imaginative visions) 속에서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Flowing Light*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넘쳐 흐르는’ 사랑의 개념, 인간 안의 열망으로서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근본적 존재로서의 영혼의 회귀’의 개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벌거벗음”(shameless nakedness, I, 44)이 그녀의 작품이 지니는 신비적인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물러남’(estrangement from God)이라는 ‘포기의 신비주의’(mysticism of abandonment)에서 진정한 고독과 소멸을 통한 사랑을 깨닫게 한다.

12-13세기 중세수도원 문화와 스콜라사상의 발전은 기독교사상과 수행의 두 측면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발전의 한 중앙에는 남성들의 이름이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힐데가르트나 베긴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대의 종교문화와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언약한 여성들의 감수성어린 비전은 스콜라사상의 논리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 나의 몸에 시대의 아픔을 담아 —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시대에 뛰어든 여인들

### 스웨덴의 브리지트(1303-1373)

14세기 서방교회는 교황의 아버지 농 유수(1309-1377)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버지 농 유수는 교회의 타락과 같은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정치지형과도 맞물려 있었다. 당시 가장 첨예한 이와 같은 교회사적 사건에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 중의 한 명이 스웨덴의 브리지트(Bridget)다. 브리지트 수도원의 창시자이자 스웨덴 왕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브리지트는 7권의 *Revelationes*를 포함한 작품을 남겼다(Holloway 2000).

당대의 암담한 종교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그녀의 저작은 무엇보다 수많은 정치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그녀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당대 클레멘트 11세(Clement XI), 우르반 5세(Urban V), 그리고 그레고리 11세(Gregory XI)에게 아버지 농을 떠나 로마로 돌아갈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아버지 농 유수가 영적 의무에 있어서 교회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녀는 더 나아가 아버지 농 유수가 당대 고리 대금업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프로방스 지역의 갈등과 불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의 삶과 작품은 아버지 농 유수로 대변되는 당대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한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권력과 세속권력의 뿌리깊이 박인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로마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보낸 그녀의 마지막 생애는 아버지 농 근처에서 활약하던 귀족 브리지트와 좋은 대조를 보여준다. 브리지트는 당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지진과 흑사병이 만들어낸 고아와 사회적 약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인생을 마감했다.

브리지트에게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종교-사회적인 현실을 받아들여, 자신의 신비적 계시경험으로 재해석해 내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내었으며, 죄악으로 가득찬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의 개념을 강조했다. 브리지트는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커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브리지트는 여기서 마리아가 자신을 이러한 중재자로 지목했고, 자신이 비참한 현실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하는 통로라고 주장한 점이다. 브리지트는 중보자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세교회가 발전시켜 온 정결과 죄의 사면개념을 자신의 신학과 계시이해에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죄악된 삶, 정결, 그리고 사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몸(Body)의 개념을 발전시켰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녀의 솔직하고 담대한 현실에 대한 비평 때문에 때로는 마녀로 몰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당대 그 누구도 쉽사리 하기 힘들었던 행동을 여성의 몸으로 감당해 내었다.

### 상흔을 갈구한 줄리안(1343-1413)

폭 넓은 신학적인 식견과 신비주의적 영성을 동시에 갖추었으면서 당대 시대상황을 자신의 신앙 안에서 승화시켜낸 예를 우리는 영국의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줄리안은 지속적인 역병, 궁핍한 삶, 결과적으로 죽음에 만연한 14세기 후반 그리스도의 모성애적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면서 영국사회에 등장했다. 마저리 캠프의 방문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영적 상담가였던 줄리안은 1373년경부터 일련의 계시를 받아 짧은 본문과 긴 본문으로 구성된 *Showings*를 남겼다. 이러한 줄리안의 작품은 제롬의 라틴 성경(Vulgate)에서 스콜라주의 사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상흔과 같은 영성 신학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Showings* 1978, 2004).

이 중에서 본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줄리안이 당대의 시대적인 아픔을 신비주의의 신학이라는 비전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신비주의적인 비전으로 읽어낸 것은 그녀의 짧은 본문에서 등장한 신체적인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일련의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점은 줄리안 신학의 핵심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사랑의 한 복판에 자리잡은 ‘그리스도의 수난’이 절묘하게 융합된 곳에서 등장한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보는 것, 신체적인 질병을 앓는 것, 그리고 세 곳에 상흔을 받는 것과 같은 세 가지 상처를 요구한다. 줄리안에게 이러한 질병이 주어졌을 때, 이는 비전과 함께 내려왔다. 그리고 줄리안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그의 짧은 본문 제2장에서 느낀 죽음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 후에, 나의 시력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안의 내 주변은 모두 어두워졌고, 밤과 같이 어두웠는데... 그 후에, 나는 나의 신체의 위쪽 부분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의 손들은 양쪽으로 떨구어졌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약해서 나의 머리는 한쪽으로 축 늘어졌다. 내가 느낀 가장 커다란

고통은 내 숨이 짧아지고 나의 생명이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죽을 찰나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고통이 나를 떠났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또는 이래로 계속 그랬던 것만큼 나는 건강해졌는데, 특별히 나의 몸의 위쪽 부분이 그러했다. 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행위에 의한 것이었고 자연적이지 않은 것처럼 내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느낀 이러한 편안함 안에서 나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에 더 이상의 확신도 없었고, 완전한 편안함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나의 마음이 바랬던 것이었기 때문이다(Short Text 2장).

이러한 그리스도의 수난의 상처를 통해 줄리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성애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대의 사회적 절망감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줄리안이 표현한 종과 아들의 메타포를 내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대 역병과 경제적인 피폐함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고난과 섬김, 아들로써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줄리안에서 있어서 그리스도는 힘든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종이었고,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께 이끌어 줄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종종 줄리안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모든 복 있는 삼위일체의 업적을 명상했는데, 그러한 명상 안에서 나는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다. 부성의 속성, 그리고 모성의 속성, 그리고 주님의 속성이 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Long Text 58장)

## 결론 — 언약한 자의 고귀함을 아는 자의 아름다움

본인은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 직전에 이르는 기독교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들을 다섯 가지 범주를 따라 고찰해 보았다. 마리아와 테클라는 기독교의 태동기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 4세기부터 본격화된 수도원의 등장과 동정성의 개념은 기독교의 형성기에 중요한 4세기 르네상스에 여성들도 중요한 공헌을 했음을 잘 보여주었다. 8세기 르오바의 생애는 복유립 기독교

의 등장에 중요한 공헌을 한 보니페이스와 르오바라는 조력자들의 이름다음 모습을 통해 여성의 역할을 묘사해 주었다. 12-13세기 힐데가르트와 베긴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 신비주의자들은 에카르트로 대변되는 중세 독일신비주의와 좋은 비교를 제공해준다. 14-15세기의 브리지트와 줄리안은 당대 시대 상황을 여성 신앙인의 눈과 마음을 통해 승화시키고 있다.

마리아와 테클라에서 시작된 기독교역사에 있어서 여성 신학자들의 기나긴 전통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베드로를 가르친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부터 21세기 한국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우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해석되고 정해진 규범에 따라 평가되어 왔다. 여성들은 남성들, 남성 성직자들이 정해주고, 해석해 주고, 부과해 준 신앙의 잣대와 종교규범 속에서 주로 살아왔던 것이다. 베긴 여성들과 같은 일부 여성들이 그러한 범주와 규범을 넘어서려고 했지만, 이단과 유대인 그리고 여성들은 적지 않은 경우 ‘울타리를 넘어선 반-규범론자’라는 이름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많은 여성들은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의 신앙적 명상과 마르다의 행위적 실천을 종교문화와 신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잘 드러내 주었다. 비록 ‘연약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나약한 자매들’이었지만, 그들은 신비적인 명상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신앙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남성위주로 구성된 교회조직과 위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응으로부터 저항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를 헤쳐나갔다.

기독교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를 해 내는 작업은 이러한 여성들의 삶과 사상이 갖는 보다 심도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제기하는 여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본인의 논문은 기독교역사에 등장한 위대한 여성들을 소개하는 선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좀더 많은 여성관련 문헌들이 소개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해석과 평가를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학제적 분화가 어려웠던 초대와 중세 기독교에 여성들의 삶과 사상 역시 전체로서의 우주와 공동체와의 밀접한 관계가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롬의 ‘그리스도의 신부’론이 현재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성들이 아담과 인류를 타락시킨 장본인으로 묶여있던 시대의 맥락과 해석적 한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주장했던 ‘배우지 못하고 언약한’ 여성들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보다 쉽고 분명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의 언약한 몸과 언어와 마음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남성들과 위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남성 학자들에게서 보다 자주 발견되는 논리와 사상 대신 기독교 여성들은 시와 음악과 그림을 계시의 매개체로 더 선호했다. 중세 수도원 신비주의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베르나르의 아가서 주석과 아이콘적 기능을 갖는 힐데가르트의 그림한 장이 갖는 힘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단순 구조를 떠나, 언약한 자의 고귀함을 깊이 알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여성들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넘(C. Bynum)이 역설적으로 주장했던 초대와 중세 기독교는 ‘Jesus as Father’ 대신에 ‘Jesus as Mother’를 더 선호했을지 모른다.

## 참고문헌

- Carlson, A., “*Mundus Muliebris: The World of Women Reviled and Defended ca. 195 B.C. and 1551 A.D.*” *Sixteenth Century Journal* 24 (1993): 542-560.
- Clark, Elizabeth, *Ascetic Piety and Women's Faith: Essays on Late Ancient Christianity*. Lewiston, NY: Edwin Mellen Press, 1986.
- Dagron, Gilbert, *Vie et miracles de sainte Thècle: texte grec, traduction et commentaire*. Bruxelles, 1978.
- Holloway, Julia Bolton. trans., *Saint Bride and Her Book: Birgitta of Sweden's Revelations*. Woodbridge, Suffolk; Rochester, NY: D.S. Brewer, 2000.
- Julian, *Showings*. Edmund Colledge & James Walsh. eds. New York: Paulist Press, c1978.
- \_\_\_\_\_, *Showings*. Denise N. Baker. ed. New York: W.W. Norton, 2004.
- King, Karen, *The Gospel of Mary of Magdala: Jesus and the First Woman Apostle*. Santa Rosa, Calif.: Polebridge Press, 2003.
- Maitland, Sara. trans. & ed., *Passio SS. Perpetuae et Felicitatis*. Evesham: Arthur James, 1996.
- Matter, Ann, *The Voice of My Beloved: the Song of Songs in Western Medieval Christianit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c1990.
- McNamara, Jo Ann & John E. Halborg, *Sainted Women of the Dark Ag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2.
- Robinson, J.M.,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1] c1977.
- Ruether, R.R. ed., *Religion and Sexism: Images of Woman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New York: Simon & Shuster, 1974.
- Russell, Norman. trans., *The Lives of the Desert Fathers*. London: Mowbray; Kalamazoo, Mich.: Cistercian, 1981, c1980.
- Salisbury, Joyce E., *Perpetua's Passion: The Death and Memory of a Young Roman Woma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7.

Schmitt, Miriam and Linda Kulzer. eds., *Medieval Women Monastics: Wisdom's Wellsprings*.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96.

김재현, “Hildegard of Bingen's Gospel Homilies and Her Exegesis of Mark 16.1-7,” *KOINONIA*: XIII:2 (2001): 133-151.

\_\_\_\_\_, 「중세 여성신학자들」, 『중세영문학』 XI.1(2003): 21-41.

\_\_\_\_\_, 「*Mulieres vulgariter dictae beguinae*: 메히트힐트를 중심으로 한 베긴회 연구」, 『중세르네상스영문학』 XII.1(2004): 43-65.

<Abstract>

Devil's Gateway or the Bride of Christ?  
— Women in Christian History, From the Origin of  
Christianity to the Fifteenth Century —

Kim, Jae-hyun

Extensive studies on Christian women have proved that there were numerous women leaders in Christian history. The following changes enhanced the study of women-related issues: the increase of women scholars who deal with Christian women, constant discovery and introduction of women-related sources, introduction of socio-anthropological methodology, and ever-increasing interest in social marginalities such as women and heretics.

I looked at a number of prominent women in Christianity from the early Christianity to the eve of Reformation based upon five categories. First, Mary in *the Gospel of Mary* and Thecla showed their crucial roles in the burgeoning period of Christianity. In conjunction with the ideal of monasticism and the concept of virginity, second, women in the fourth century renaissance proved that they were major partners to male theologians in the formative period of Christianity. Third, *the Life of Leoba* witnessed the beautiful partnership and mutual respect between Boniface and Leoba who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medieval Christianity in Northern Europe. Fourth, women mystics like Hildegard of Bingen and the Beguines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make a good contrast to the German mystics like Eckhart. Fifth, Bridget of Sweden and Julian of Norwich embraced their age and context through their hearts and eyes as Christian women.

Meditation and activity of many women theologians continue after the time of Reformation and even to the present time. From the stories of Mary who taught Peter and numerous women leaders in Korean Christianity, we recognize that Christian women have been frequently interpreted, evaluated, and oppressed



with the norms formed by males and male theologians. Women were forced to live by the rule of faith imposed by males. Even if some women such as the Beguines tried to go beyond man-made categories and norms, they were oftentimes censored and labeled as ‘anti-nomianists who violated God-given boundary.’

Nevertheless, many women revealed and even combined the faithful meditation of Mary and actual praxis of Martha in religious cultures and various aspects of their faith. Even though they were “fragile, unlearned, and weak sisters,” they tried to put their faith and belief into their own lives through mystic contemplation and Christian practices. Facing the difficulties from male dominant church organizations and hierarchies, they attempted to cope with these issues by using different methods and tools from obedience to defiance.

**Key words:** Christian history, women leaders, Mary and Thecla, Monasticism and Virginitly, Leoba, Hildegard, the Beguines, Bridget and Julian